

“좁은 門”

宋 旼 求
도성건축연구소

최근 건축에 관한 잡지로서 “건축과 환경”이 창간되었다. 또, 건축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國土와 建設”이 아마도 10월이면 제3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면 협회지로서 “建築士”, 학회지로서 “建築”, 가협회지로서 “건축가”가 있으며, 역시 건축도 한 지면을 차지하는 예술에 관한 종합지로서 “空間”이 200호를 넘겼는가 하면, 건축전문지로서 “꾸뎀” “建築文化” 등이 꾸준히 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 건축계도 폭넓은 논단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원래 우리나라는 대학에 건축과가 있는 곳이 30여개소나 된다고 하며, 미국의 130여개소와 비교할 때 그 졸업생 수는 엄청난 수가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잡지의 구독층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잡지발행에 있어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도 최근의 잡지들의 경향이 작품들을 보는 잡지가 아닌 읽는 잡지로서 특히 평론 또는 비평의 논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안되는가 여러모로 생각해 보곤한다.

원래 서구에서 평론 또는 비평이 하나의 Genre로서 정착한 것은 반세기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평론 또는 비평이 자리를 굳히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하는데, 그와 비교하면 건축은 아직도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잡지들이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작가 또한 그러하다.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 작품은 여러 意味場, (Semantic Fields)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문맥을 구성하므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나 작품을 잘 이해해 주지를 못한다든가 더우기 우리들 건축가 사이에서만이라도 대화

있어야 하거늘 그것이 없다면, 마치 허공을 바라다보고 포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는 우리의 건축문화가 발달할 수 없는 까닭에 사명감에서 잡지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평론 또는 비평의 장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토론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평론 또는 비평을 누가 집필해주는가가 의문이다.

그동안 많은 글들이 쓰여졌으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논단이 성숙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느낌이되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예비평 또는 평론이라든가 다른 조형예술의 그것과는 건축에 관한 평론 또는 비평은 판이하며, 그것은 건축이 지닌 본질적인 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건축은 靜觀 (Contemplation)의 대상인 동시에 이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건축에 관한 평론 또는 비평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고도의 기술적인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오늘날 같은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평론 또는 비평을 쓸 때에는 우선 역사가관이 투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상을 그려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자신의 철학 또는 좁게 말하여 예술론이 정립되어 있어야만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작가와 대등한 창작능력을 지니고 있어 작가의 내면 깊숙히 파고들어갈 수 있는 통찰력도 겸하여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데 사회문화사적 평론에 전념했던 머포드 (Lewis Mumford, 1895-)가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예술과 기술 사이의 단층은 더욱 더욱 깊어가기만 하고 있다. 또, 인류는 “기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그 공동체의 과학에는 항상 선과 악의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주 : 1)

그러한 광범위한 속에서의 건축의 여러 측면을 고찰하며 또 기술과 예술 사이의 단층을 어떻게 메우는가를 제시해주어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줄 사람은 어느 누구인가 하는 것이 필자의 물음이다.

또, 미술계조차도 이제는 主知主義 다시 말하여 진리라는 것은 이성에 의하여만 구하여지고 조화·통일된 것이라는 사상 밑에서 창작되었던 사조가 점차로 퇴조되어 가고있다. 즉, 평론이나 비평을 하는 사람은 시대정신이 변천되어 가는 모습에 지극히 민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공부하며 사회에 배출되곤 하였다. 그러나 아직 걸출한 건축평론 또는 비평을 하는 사람을 대하지 못하였다. 건축에 관한 논단이 불모의 땅이었었다는 원인의 하나는 바로 대학교육에도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며 건축을 하고 건축하며 생각하여 하나의 창작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창작과 可逆關係에서 건축을 생각하며 작가의 창작의 심층에 도달하여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이 평론이요 비평인 것이다.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 교육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속된 말로 “장사가 않된다”면 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러한 자세의 사람들이 배출되므로써 표절사건과 같은 일이 야기되는 것이다.

잡지의 최근의 경향에 매우 고무적인 것을 느끼면서 한편 “좁은 門”으로 표현되는 대학입시가 필자의 눈에는 “넓은 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 : 1 “과학과 사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84

번 長간호 P.M